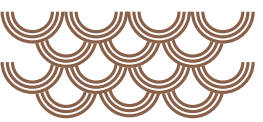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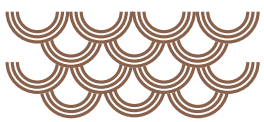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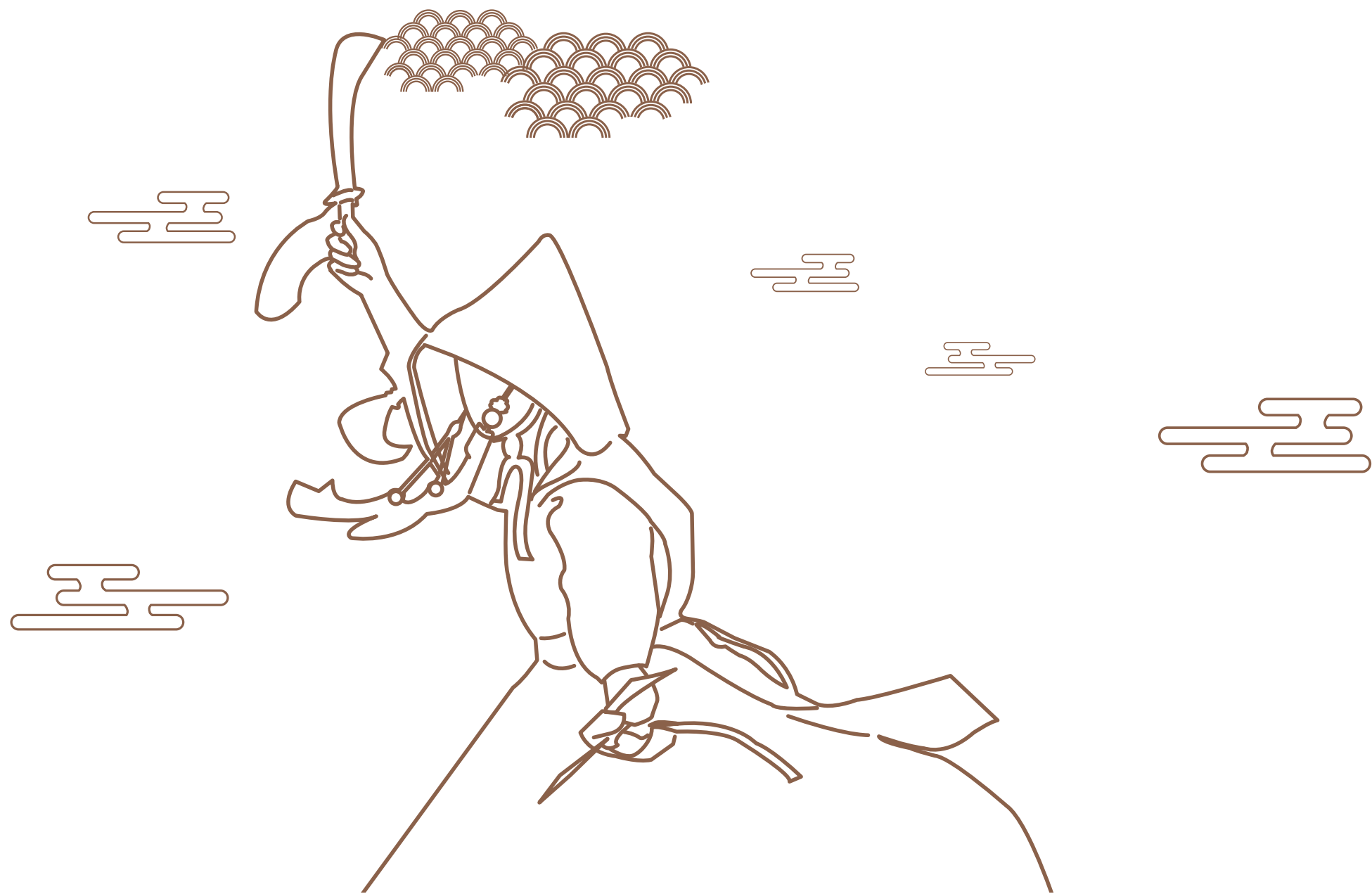


평범한 아버지들의 웃을 수 없는 광대가

광대가 리골레토





일시 | 2021년 12월 30~31일 19시 30분

장소 |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

가격 | 20,000원

예매 | 인터파크티켓 ticket.interpark.com

문화N티켓 www.culture.go.kr

문의 | 인터파크티켓 1544-1555

동화 02-943-4450

베르디 오페라가 소리극 <광대가(廣大歌) 리골레토>로 재탄생

귀족에게 복수하려다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광대의 슬픈 이야기!
베르디 최고의 명작 오페라 리골레토가 전통 연희와 만나다.
<광대가(廣大歌)_Rigoletto>는 판소리와 무가(巫歌),
정가와 같은 한국의 소리를 베르디 원작 오페라와 긴밀하게 융합하여
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전통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.
소리를 베르디 원작 오페라와 긴밀하게 융합하여
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전통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.
한국의 소리 중 특히 판소리는 오페라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.
극의 형식이 노래와 대사의 반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문학과 음악,
그리고 연극이 긴밀히 결합된 총체적 예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.
<광대가(廣大歌)_Rigoletto>는 장르적 유사성을 면밀히 관찰하되
여기에 소리꾼과 국악 창작그룹 동화만의 색다른 실험으로
'전통소리X오페라'라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.



줄거리

한 광대 아버지가 있다.

권력자 옆에서 입 속의 혀처럼 굴면서 남을 짓밟아왔던 아버.

살아남기 위하여,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.

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유일한 가족, 딸 ‘질다’가 있기 때문에...

그는 딸을 위해서라면 밟혀도, 밟혀도 웃을 수 있는 광대가 될 수 있었다.

밟아도 밟아도 웃으며 더 밟아줄 수 있었다. 그의 딸을 위해서라면...

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세 혼(魂)을 부른다.

저 멀리, 공국 만토바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기가 막힌 전모가

우리네 무녀인 선관(仙官)을 통하여 하나씩 짚어져간다

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...

오늘 제사의 주인은 바로 광대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딸!

누가 과연 그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일까?

딸을 잃고 웃음을 잃은 광대 아버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

선관이 딸의 혼령을 불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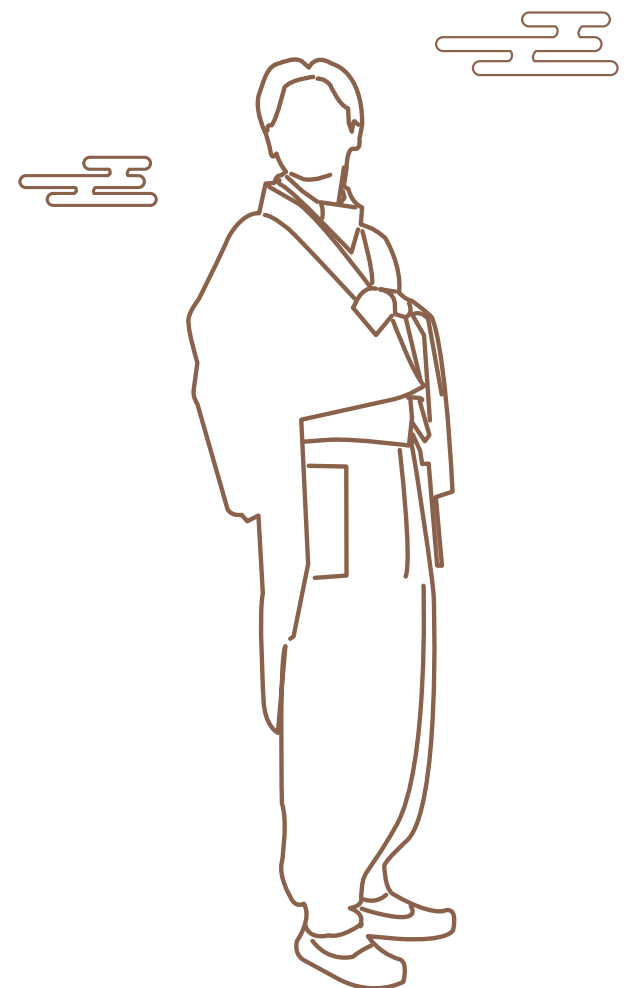
그리고 딸의 혼령에 불러 나온 한 남자,

바로 자신의 주인이자, 만토바의 공작!

세 영혼은 선관에 의해 그 날 밤의 일을 더듬더듬 짚어 가는데...

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업의 인연을 선관(仙官)이

우리의 소리와 제의를 통하여 풀어준다.



창작진

원 작 빅토르 위고 '왕은 즐긴다' 베르디 오페라 '리골레토'

제작진 대본·작사 구 도 윤

연 출 프카구치 토모

총 감독 서 유 석

음악감독 김 예 슬

음 악 동 화

작 창 이 수 완

서 어 진

오 단 해

임 상 숙

무대디자인 SHINE O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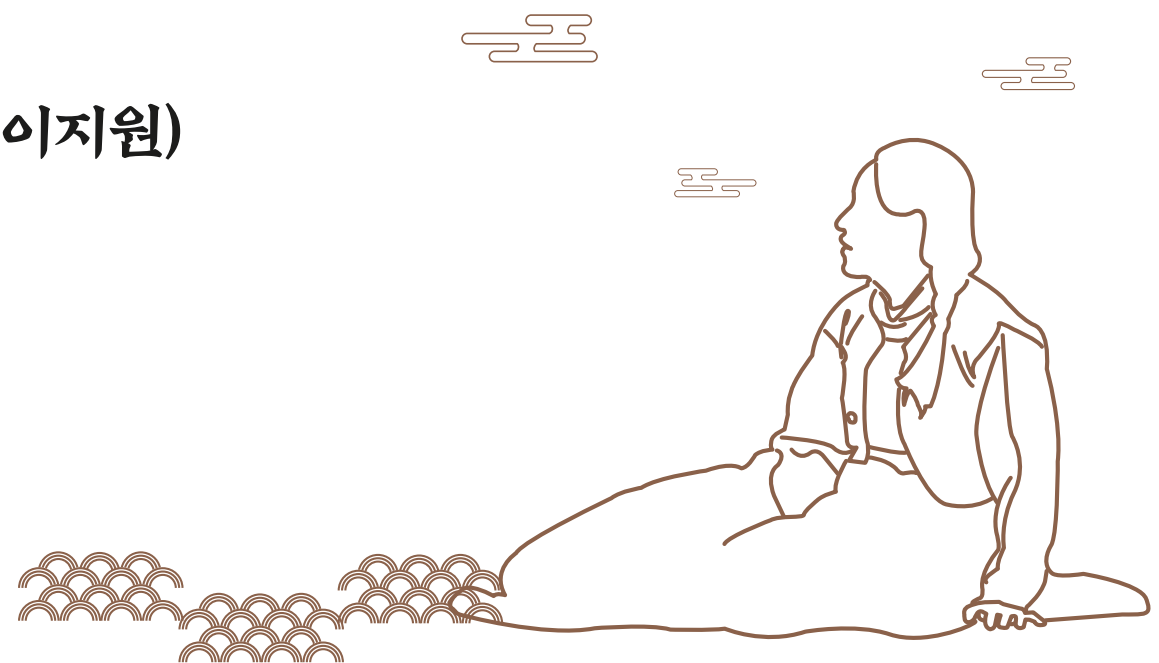
조명디자인 라 성 연

음향디자인 폴 리 워 스 (이지원)

의상디자인 온 달

총괄기획 서 민 수

홍 보 나 형 진



주최·주관  Donghwa

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오시는 길

